

“은퇴 후 제2인생, 농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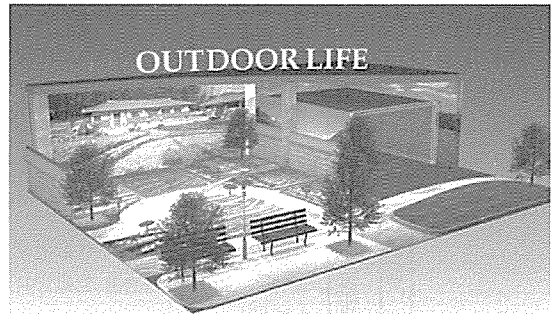
- 2006 전원마을페스티벌 -

본 협회가 2004년과 2005년 농업인의 날 국제 심포지엄을 주제로 “도·농복합정주공간 가꾸기”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다차,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에 대한 소개와 한국형 국민농원갖기운동을 정부에 제안 한 바 있다.

이는 도농교류의 마지막 단계로써 도시민의 농촌에 반 정주나 정주를 정착시키는 것으로써 도시민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륜을 도농교류에 접목시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농촌마을은 과소화와 노령화로 인해 점차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현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마을에 꼭 필요한 전문성과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사랑하는 도시민들을 유치하여 상부상조하면서 마을의 발전을 이루어 가야만 할 것이다.

농특위와 농림부, 농촌공사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한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개 시·군이 출품한 22곳의 전원마을 조성계획과 조감도, 주택형



2006 전원마을페스티벌의 300평 텃밭 조감도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 안내를 도와주신 정계옥 회원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참가한 도시은퇴자 모습

태 등이 전시된 이번 페스티벌에서 시장·군수들은 현장에서 직접 입주신청을 받기도 했다.

본 협회는 이 페스티벌에서 텃밭을 제안하여 설치하고 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안내를 담당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본회가 2005년과 올해 실시한 도시민 웰빙 농사교육의 수료자들이 대거 참여 하여 귀촌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200평 규모의 텃밭을 자급자족형 텃밭으로 가꾸면서 장수시대의 새로운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공간 만들기에 역점을 두었다.

전원마을이란?

전원마을은 우선 입주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인이 전원주택을 조성할 경우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의 비용부담이 있는 반면, 전원마을에 입주하면 정부 및 해당 시·군이 이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액은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규모에 따라 10~20억 원(국고 80%, 지방비 2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며, 주택건축비의 경우 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저리(3~4%) 융자지원도 하고 있다.

또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도시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전원마을 조성방식은 시·군이 직접 부

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경우와 동호회 등 전원마을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로 나뉜다. 민간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부지와 입주예정자를 확보해 관할 시·군에 지원신청을 한 후 정부가 이를 검토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된 정보는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한국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어촌포털사이트(www.nongchon.or.kr)나 농어촌종합정보포털센터(1577-1417)를 이용하면 귀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 관람관경



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 관람관경